



지성

# “연애시절 곱던 그녀를 찾습니다”

지성, tvN '아는 와이프'서 한지민과 권태기 부부로 연기 호흡  
5년 차 부부 리얼한 일상 현실감 있게 표현 “시청자 위안 받길”



한지민

“유부남 일상 연기 부담스러워 처음엔 출연 거절했죠.”(지성)  
 “주부 연기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입었던 옷도 번갈아가면서 입어요.”(한지민)  
 배우 지성(41)이 한지민(36)과 tvN 새 수목극 '아는 와이프'에서 부부 역할로 호흡을 맞춘다.  
 이 드라마는 한 번의 선택으로 달라진 현재를 살게 된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로, '이 여자 또는 남자가 아닌 다른 인연을 택했더라면?'이라는 질문을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지성과 한지민은 극 중 5년 차 부부 차주혁과 서우진으로 분한다.  
 집에서는 아내, 밖에서는 상사에게 차이는 대한민국 평범한 가장 차주혁을 연기하는 지성은 2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처음엔 ‘유부남의 일상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내 주변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생각해보 수 있는 드라마라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결혼했지만, 차주혁은 저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며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나 자신도 어떤 방식으로 성숙해야 할까 질문을 던지면서 촬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가 가정 사이에서 동분서주하는 워킹맘으로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한지민은 “어떤 장면이든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진은 스트레스가 내재한 상태에서 분노 조절장애를 겪는 인물인데, 그 상황이 이해가 됐다”며 “사랑 냄새 나는 드라마다”고 설명했다.  
 미혼으로 아이 엄마 역할을 맡게 된 한지민은 “주부 연기는 처음 도전하는데, 최대한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비주얼은 포기했다. 찌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입었던 옷을 번갈아가면서 입는다”며 “아이는 없지만, 조카가 두 명 있어서 육아를 도왔던 것이 도움됐다”고 했다.  
 두 사람은 호흡도 자랑했다.  
 지성은 “한지민 씨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처음부터 벽이 없었다”며 “둘 다 아이를 좋아해서 극중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촬영도 쉬웠다”고 말했다.  
 한지민도 “긍정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러 저까지 그 에



너지를 받아서 촬영하고 있다”며 “지성 선배가 실제로 육아를 하고 계시니까 믿음이 가고 든든했다. 함께 키즈카페 정보 등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지성과 한지민 외에 장승조, 강한나가 출연한다.  
 지성은 “실제 예비 아빠인 장승조 씨와 가족 이야기 많이 한다”며 “장승조 씨가 ‘잡혀 사는 면에서 우리 둘이 비슷하다’고 했다”고 웃었다.  
 그는 “요즘 세상 살기 쉽지 않고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이번 드라마로 시청자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연출은 ‘쇼핑왕 루이’의 이상엽 PD, 극본은 ‘고교처세왕’, ‘오 나의 귀신님’, ‘역도요정 김복주’의 양희승 작가가 맡았다.  
 양희승 작가는 “부부도 오래된 연인인데 권태기가 있는데, 그 과정을 겪은 부부가 똑같은 과정으로 다시 사랑하는 이야기를 그렸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1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영화 '미션 임파서블6' 흥행 질주

5일만에 330만 명 기록...극장가 장악

할리우드 대작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이하 미션6)이 주말 극장가를 장악했다.  
 3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주말 이틀(28~29일)간 184만3994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329만9744명을 기록했다.  
 '미션6'는 이 기간 총 1957개 스크린에서 1만7803회 상영됐으며, 매출액 점유율은 66.6%에 달했다.  
 '미션6'는 IMF (Impossible Mission Force) 요원 '에단 헛트' (톰 크루즈 분)가 테러조직 '아포스톨'에 맞서 핵 공격을 저지한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의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톰 크루즈의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으로 채워졌다.  
 디즈니·픽사의 20번째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2'는 38만9477명의 주말 관객을 불러들이며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미션6'와 함께 개봉한 김지운 감독 신작 '인랑'은 힘을 받지 못하며 3위에 그쳤다.  
 이틀간 동원한 관객은 27만4592명으로 누적 관객 수는 75만9370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3년만의 귀환” 백종원, ‘한식대첩’ 심사위원 참여

백종원 대표가 올리고 체널의 한식 서바이벌 프로그램 '한식대첩-고수외전'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오는 9월 첫 방송을 앞둔 '한식대첩-고수외전'은 '한식대첩'의 스피노프로, 한식에 관심이 많은 해외 유명 셰프들이 출연해 한식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시즌 동안 출연한 국내 고수들과 팀을 이뤄 각 지역 한식을 배우며 만든다.  
 시즌2와 시즌3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한식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전한 백종원은 3년 만에 '한식대첩'에 복귀해 다시 한번 '음식 백과사전'다운 면모를 자랑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끝까지 사랑(재) 40 너도 인간이니?(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50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4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2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55 숨터 (재)		55 닥터 365
2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시사간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15 양코리 UHD 특선다큐 라이프 오브 독	00 고향건물극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1 대 100(재)	00 5 MBC 뉴스 2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 (재)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 대 100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너도 인간이니?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엄마 아빠는 외계인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독립영화관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백치미(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꿈꾸던 여름 캐나다 동부 2부 숙숙의 파라다이스〉
08:30 몬카트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5 파프리카	〈오지의 여름 2부 마장터 가는 길〉
09:00 뽕뽕뽕 뽕뽕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크프라이미 〈한국의 길〉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22:45 글로벌 아빠 찾아심리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3:55 백치미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45 지식세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명 유치원1~2	24:50 다크 시네마 〈츄츄는 숲〉
〈오색 불교〉컵밥과 가지구이〉	17:15 마사와 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1일 (음 6월 19일 庚戌)

<p>36년생 할 수 있는 일 까지만 실행하는 것이 맞다. 48년생 듣지도 보지도 못 했던 일이 벌어질 수다. 60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72년생 가벼운 연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84년생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2, 09</p>	<p>42년생 뜻밖의 횡재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 54년생 회색이 따르더라도 감수하라. 66년생 훗날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78년생 새로운 문서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라. 90년생 내적인 실속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1, 29</p>
<p>37년생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49년생 전체의 입장을 우선 하자. 61년생 이익은 생기지만 소량이다. 73년생 확실한 자기 주관과 결연한 의지가 요망된다. 85년생 침착함을 잃는다면 연쇄적인 흥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1, 12</p>	<p>43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다. 55년생 일관된 소신으로 단호하게 결단하라. 67년생 지금까지의 말로 제재를 받았으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79년생 원래부터 관련이 없는 것이었느니라. 91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5, 47</p>
<p>38년생 갈구하고 있다면 쉽게 눈에 띌 것이다. 50년생 박잔 하루가 될 것이니라. 62년생 무리한 판단을 자제하고 순리적으로 처리함이 해법이다. 74년생 마무리가 좋으면 성취하는 바가 많으리라. 86년생 도토리 키 재기 식이니 별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84, 71</p>	<p>44년생 짐작치 못한 불패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56년생 참과 거짓을 헤아리기 힘들 것이니라. 68년생 본능적이라면 위험해지는 법이다. 80년생 능률적인 여건이 조성 되리라. 92년생 뜻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65</p>
<p>39년생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해결책을 찾지 못 한다. 51년생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야 망상이 없을 것이다. 63년생 급한 상황이 되면서 오판할 수 있다. 75년생 힘이 모아져야겠다. 87년생 단순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45</p>	<p>45년생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라. 57년생 전체일 우의 호기다. 69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 될 것이다. 81년생 심각한 문제점이 보인다. 93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척결이 시급하니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 해야 만 한다. 행운의 숫자 : 69, 38</p>
<p>40년생 구색을 맞추다 보면 무리할 수도 있음을 알라. 52년생 회교인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단속이 절실하다. 64년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76년생 지속적인 노력 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88년생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2, 74</p>	<p>34년생 길사주 연결되고 있으니 기대해 볼만하다. 46년생 아차 하는 사이에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있을 수다. 58년생 먼저 손을 내밀어라. 70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82년생 기본에 충실 한다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4, 61</p>
<p>41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 놓여 있느니라. 53년생 해결점을 찾는다. 65년생 기쁜 마음으로 임한다면 효 율성을 높일 것이다. 77년생 도중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이가 나타날 수 있다. 89년생 조용히 암중모색해야만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16, 90</p>	<p>35년생 되돌아 갈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다. 47년생 전에 볼 수 없었던 성공이니라. 59년생 묵묵히 진행해 나가 기가 하면 궁극적으로 성사 되리라. 71년생 계획했던 대로 진행 되리라. 83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89, 33</p>